

요한계시록의 여성주의적 해석 비판

A Criticism on the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송영목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 차

들어가면서 | 12

1. Elizabeth Schüssler Fiorenza | 15

2. Adela Yarbro Collins | 18

3. Tina Pippin | 20

4. Josephine Massyngberde Ford | 22

5. Margaret Barker | 23

6. Felise Tavo | 24

7. Clarice J. Martin | 25

8. Barbara R. Rossing | 28

나오면서 | 29



요한계시록의 여성주의적 해석 비평

페미니즘 해석은 최근에 발전된 성경 해석 방법 중 하나다. 1960년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의 현대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주의적 해석이 일어났다.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회, 경제, 정치, 종교적 평등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남성에 의해 억눌린 여성의 권리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이다. 이 글에서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영어권의 여성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을 살펴본 후 그들의 입장을 비평한다. 그리고 페미니즘 경향은 아니지만, 여성 신학자가 계시록의 특정 주제를 다룬 글도 추가로 소개한다. 대부분의 페미니즘 해석은 저자의 의도를 무시한 해방신학적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계시록의 후기 저작 연대에 기초한 반 로마적 해석에 치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구약 간본문적 해석의 필요성과 계시록의 언약적 메시지를 간과하고 있다.

*A Criticism on the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주요어

요한계시록, 페미니스트 해석, 반 로마적 메시지, 상황화, 포스트모더니즘

Abstract

A Criticism on the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Prof. Dr. Young-Mog Song

Feminist interpretation is one of the most recent methods that have developed to interpret the Bible. Although there were previous writings, the feminist approach emerged during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owing to the modern women's movement. Although there are many definitions of feminism, they all have a common theme as a movement for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religious equality, and the rights of women. In this paper, the present researcher probes the feminist writings in English circle on the book of Revelation and then critiques them. In addition, research on the specific theme which are related with the book of Revelation are introduced, although they are distinct from the feminist standpoint. Most of recent feminist readings of Revelation are inclined not only to the liberation-ideological criticism which neglects the role of the

author, but also to an anti-Roman message based on the presupposition of a late writing date of the book. Feminists do not pay proper attention to the OT intertextuality of Revelation, and fail to keep in mind the gist of the book, that is Christ's covenantal curse on His opponents and His consolation toward the seven churches in Asia Minor.

Keywords | Book of Revelation, feminist interpretation, anti-Roman interpretation, contextualization, postmodernism.

들어가면서

1960년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의 현대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주의적 해석이 일어났다.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회, 정치, 종교, 경제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남성에 의해 억눌린 여성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이다. 페미니즘은 크게 3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온건한 페미니즘으로 가부장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성경의 껍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계시(즉 남녀평등)라는 알맹이를 발견하려는 Phyllis Trible로 대표되는 개정하려는(revisionistic)입장, (2) 개정하려는 입장처럼 성경은 여성에 대해 편견을 가진 본문이라고 간주하지만, 기존의 성경 해석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거부해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예. Mary Daly), (3) E.S. Fiorenza로 대변되는 과격한 여성해방적 입장.)¹⁾ 현대의 흐름을 살펴볼 때, 세 번째 입장이 대세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비평’(feminist criticism)은 해방신학적 이데올로기 비평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계시록 연구에 여성의 활동이 적지 않다. 해방신학적 여성주의 안에서라도 입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법론과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²⁾

1) S. Adams, “Feminist interpretation,” (In Porter, S.E., ed, Dictionary of Biblical Criticism and Interpret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107.

2) 이 글에서 ‘feminist’와 ‘womanist’는 교차적으로 사용한다. 페미니스트 비평은 ‘흑인 여성비평’, ‘레즈비언 여성비평’, ‘아시아 여성비평’, ‘식민지 여성비평’ 등 다양하다. 전 세계적인 여성 운동의 일환으로 페미니즘이 발달하기 시작한 1960년 이래로 형식주의에서 기호학에 이르는 모든 비평 경향, 그리고 중세부터 대중 매체까지 모든 시대, 모든 장르와 결합하여 발달해 왔다. 참고. 일레인 쇼윌트,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 문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0-12, 178.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 비

엘리자베스 피오렌자는 ‘여성주의 성경 해석학’(feminist Bible interpretation)을 주창하면서,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을 것을 제안 한다:³⁾ (1)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 가부장적 사상으로 기록된 성경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라. (2) 성경의 역사적 사실의 해석보다는 말씀 선포의 해석학: 성경의 남성 중심적 사상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여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차별에도 굴하지 않도록 하심을 발견해야 한다. (3) 회상(기억)의 해석학(hermeneutics of remembrance): 차별받는 여성의 사건을 재구성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특별히 성경의 여성들이 지닌 열정을 기억하며 다시 읽는 것. (4) 창조적 상상의 해석학: 성경의 여성 이야기를 현재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삶과 연계시키면서 성경 속의 여성이 겪은 고난과 질곡을 넘어서 그 여성이 가진 꿈과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⁴⁾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 안의 가부장제를 비판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의 남성 기자들에 의해서 불의, 편견, 착취, 차별, 변방화(혹은 소외, marginalization)된 여성의 권위를 정당하게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전에 Mary Daly, Sarah Grimke, Matilda Joslyn Gage, Elizabeth Cady Stanton 등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남성의 말씀’이라고 보았다. 영국과 미국에서 성경이 여성의 참여를 억압하는

평이 계속 된다면 인기 TV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의 ‘남보원’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Hermeneutics’ 대신에 ‘Hismeneutics’라고 쓰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3) E.S. Fiorenza, 『돌이 아니라 빵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54-64.

4) 한국의 경우 ‘한국여성신학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신학이 논의되고 있다. 한 예로 김판임은 막 10:1-9의 여성주의적 해석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페미니즘 해석가로 문갑시킨다. 그녀가 제시하는 근거로는 정경 안의 정경 개념, 역사 비평학, 페미니즘에 부합되는 구절과 그렇지 않은 구절을 차별해서 사용하기, 가부장적 본문을 변용하기, 그리고 페미니즘에 맞추어 새로운 명제를 창의적으로 제시하기이다. 참고. 김판임, “예수의 성서 해석: 여성주의 성서해석방법론을 위한 제안,” 『신약논단』, 16(2009), 1121-1122.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오히려 여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격려해 줄 수 있다고 본다.⁵⁾ 페미니스트 해석이 한국의 남아선호사상과 현대 성경 해석 경향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볼 점을 던져주는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영감 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해체하여, 여성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소위 ‘텍스트의 반란’을 꿈꾼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은 순종과 겸손의 해석학의 일종인 하나님 중심의 성경 신학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성경해석에 남성 혹은 여성이 헤게모니를 쥌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영어권의 여성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을 살펴본 후 그들의 입장을 비평한다. 그리고 페미니즘 경향은 아니지만, 여성 신학자가 계시록의 특정 주제를 다룬 글도 추가로 소개한다.

5) 참고. 한미라, 『여자가 성서를 읽을 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4-29.

1. Elizabeth Schüssler Fiorenza⁶⁾

여성해방신학자 피오렌자는 1991년 책 ‘계시록: 정의로운 세상에 관한 비전’에서 언어의 설득적 힘을 강조하는 ‘수사학적 상징주의’로 계시록을 이해하여(p. 129), 요한(참고, ‘사도 요한’은 아님, p. 41; 계시록의 후기 연대를 주장함, p. 56)이 독자들을 드라마틱한 수사학적 여행에 동참시켜 새로운 비전을 찾아 유지하게 한다고 본다(p. 31, 37).⁷⁾ 그 결과 실제로는 계시록의

-
- 6) 독일 출신인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b. 1938)는 Würzburg신학대학교(M.Div), University of Münster(D.Th)에서 공부했다. 1988년이래로 하버드대학교의 Krister Stendahl 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녀는 1988년에 최초로 SBL의 여성회장을 역임했다. 그녀의 책 ‘In Memory of Her’는 14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남편 피오렌자는 이태리인으로, 역시 하버드대학교 신학부 교수이다. 이 글에서 계시록과 관련된 여성신학자들의 인용된 책의 페이지는 너무 많은 관계로 각주가 아니라 본문에서 표시한다. 엘리자베스 피오렌자는 성경 해석의 패러다임을 몇 가지로 구분 한다: (1) ‘교리적 패러다임’에서는 성경을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가르치는 직무에 의해서만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다. (2) ‘역사 비평적 패러다임’에서는 성경 본문의 신학적 진리성을 역사적 사실성에 따라서 평가해 왔다. 하지만 역사비평가는 본문의 진정성을 나름대로 설정 한 기준과 전승이나 양식에 따라 판단하기에 ‘정경 속의 정경’이라는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말았다. (3) ‘해석학적-상황적 패러다임’에서는 정경이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한 양식의 근원적 모델이라는 논리를 세우고, 성경은 이스라엘이나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갖가지 역사 상황에서의 다양하고 모순에 찬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 피오렌자는 성경 전승과 그에 따르는 해석을 평가하기 위한 정경과 규범은 성경과 이데올로기적인 성경의 학습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해방을 위한 투쟁 안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녀는 여성을 해방을 규범으로 삼는 해방적 실천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그녀는 역사비평과 해방신학적 페미니즘 그리고 수사학적 해석을 절충한다. 참고, Fiorenza, 『돌이 아니라 빵』, 125-131.
- 7) 스웨덴 읍살라의 Hanna Stenström은 피오렌자와 피핀을 계시록의 대표적인 여성신학적 해석자로 소개한다. 특히 그녀는 피오렌자가 전체주의 통치(totalitarian regime)에 저항한 Ernst Käsemann와 해방신학(남미의 Pablo Richard, 남아공의 Alan Boesak)의 영향을 받아서 계시록이 전체주의적 통치나 부당한 사회 구조와 억압에 대해 저항하는데 영감을 준다고 보았다고 지적한다. 피핀의 경우는 ‘성 분석’(gender analysis)이 핵심이며, 그것이 본문을 거부하는 데까지 인도했다고 본다. 피핀은 계시록과 역사적 배경을

역사성을 부인한다. 이것은 문학적 고안과 장치가 역사성을 폐지한 결과이다. 물론 계시록 본문을 요한 당시의 역사성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특히 로마제국의 반인간적인 정치적 박해를 부각시키는데, 계시록의 로마의 실상과 대립되는 환상의 세계를 봄으로써 로마에 죽을 각오로 대항해야 한다(p. 124) 그리고 계시록 안에서 요한 당시의 신화적 이미지와 구약을 연결시키려고 한다. 계시록의 다양한 환상들과 7인-7나팔-7대접 반복되는 재앙의 구조와 관련하여 ‘joints’ 혹은 ‘interlocking’(상호 맞물림)을 핵심 개념으로 파악 한다 (p. 34, 59).

피오렌자처럼 계시록을 대체 상징적 세계(alternative symbolic world)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저자의 사상을 따르도록 만드는 수사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계시록의 언어 자체가 가지는 힘을 강조한다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화행이론에 근거해서 이해한다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해되지만,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로마제국의 반인간적인 억압과 부정의를 찾는 것은 옳지만, 독자들의 최대 박해자인 불신 유대인의 세력을 간과한 것은 큰 약점이자 불균형이다. 피오렌자가 독일 역사비평에 근거하여 계시록의 사도 요한 저작성을 부인하고, 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된 것으로 본 점도 동의하기 어렵다.

J.B. Metz와 E. Käsemann에게 헌정된 1985년의 책 ‘계시록: 정의와 심판’에서 피오렌자는 바벨론/로마를 ‘원형적 대적’(archetypal enemies)에 관한 상징이 아니라, 로마제국주의의 권세와 제의와 관련된다고 본다. 계시록(특히

연결하기 보다는, 많은 이론적 견해들을 사용하여 계시록의 다양한 해석들을 찾으려고 했다. 피오렌자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피편에게는 포스터모던의 이념 비평,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후식민주의가 중심이론이다. 참고. H. Stenström, “Feminists in Search for a Usable Future: Feminist Recep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In Lyons, W.J. & Økland, J., eds, *The Way the World Ends: the Apocalypse of John in Culture and Ideology*,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9, 240-266.)

15:5-19:10)에서 요한은 약탈, 억압, 살해를 자행하는 로마제국주의를 고발한다(참고. *anti-Roman polemics*; p. 7-8). 계시록의 ‘구원’을 ‘정치-사회-경제적 해방’(계 1:5-6; 5:9-20)으로 본다(p. 68).⁸⁾ 계 11:15-19를 계시록의 핵심 단락으로 보면서, 그 안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실재를 통해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본다(p. 56).

남성의 여성 억압과 여성이 사회-신학적 의식에서 많이 근절되는 것을 거부한 피오렌자가 정치-사회-경제적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으로 보는 것은 이차적이고 수평적 차원을 수직적이고 일차적인 것으로 격상시킨 것이다.⁹⁾

8) 피오렌자와 유사한 입장을 토론토대학교 종교학부의 John W. Marshall에게서 볼 수 있다. 계시록의 이른 시기 저작을 따르는 그는 계시록을 탈식민주의 이론에 근거한 저항문서로 본다. 따라서 그는 바벨론을 로마제국으로 본다. 참고. J.W. Marshall, “Gender and Empire: Sexualized Violence in John’s Anti-Imperial Apocalypse,” (In Levine, A.J., ed. *A Feminist Companion to the Apocalypse of John*, Edinburgh: T&T Clark, 2009, 17-32.)

9) 참고로 피오렌자는 1990년대에 ‘kyriarchy’(master-rule)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것은 기존의 ‘patriarchy’를 대체하는 용어인데, 사회 구조와 지배 시스템을 합법화 시키는 틀(framework)을 뜻한다. 참고. A. Loades, “Feminist Interpretation,” (In Barton, J.,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81-94.)

2. Adela Yarbro Collins¹⁰⁾

콜린스는 1976년의 책 “계시록에 나타난 전투신화”는 하버드대학교 박사는 문에 기초한 것인데, 박해 받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p. xv). 콜린스는 이상주의적 해석을 견지하는데(p. 2), 요한이 특별히 계시록의 축소판인 계 12장에서 고대 전쟁 신화적 패턴(위협→신적 전사의 출현 및 전투→구원→승리의 외침→잔치; 예. Python-Leto-Apollo신화; Seth-Isis-Horus신화)을 빌려왔다고 주장하기에(p. 218-222), 종교 사학과적 자료 비평의 입장을 견지 한다(p. 35, 66). ‘원시적 사건’은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종말적 사건’과 맞물리게(interlocking) 된다고 본다(p. 136). 그리고 7인-7나팔-7대접을 반복이론에 근거하여 본다(p. 32). 계 12-22장은 ‘interlocking’과 ‘parallelism’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본다(p. 28). 계 12:6과 14절의 반복을 역사 비평의 입장에서 도미티안 때 ‘편집된 증거’라고 본다(p. 110; 참고. 요한은 편집자). 우주적이며 종말론적인 전투가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대적을 물리치시고 교회에게 승리를 준다(p. 144). 계시록을 예배 중에 읽고 들음으로써, 계시록의 독자-청중은 미리 승리를 경험한다. 이것은 묵시 언어가 가지는 힘이다(p. 234).

그 누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방 신화를 참고했는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사건의 빛 속에서 재해석된 구약 간본문이 중요했다. 콜린스가 자료 비평에 근거하여 익명의 요한을 최종 편집자로 본 점도 문제다.

1984년의 책 ‘위기와 카타르시스: 계시록의 권세’는 콜린스가 맥코믹신학교

10) 아델라 콜린스는 Pomona College(B.A), Harvard University(M.A, Ph.D)에서 공부했다. 노틀담대학교와 시카고대학교에서 가르친 후, 2000년 이후로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남편인 John J. Collins도 예일대학교의 구약 교수이다.

가 1979-1982년에 준 안식년 동안 연구한 것이다. 콜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을 사용하여 계시록의 카타르시스 효과를 분석했다(p. 141). 동시에 콜린스는 사회학적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을 보충해서 사용했다. 로마 제국주의 하에서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실제 위기’가 아니라, 현실 세계와 인지적 세계 사이에 차이를 감지하는 ‘인지적 위기’(perceived crisis)에 처해 있었다고 본다(p. 84). 요한은 계시록의 환상을 통하여 이 위기 하에 있던 수신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려고 의도했다는 것이다. 콜린스는 수신자들이 계시록을 읽고 듣는 중에 ‘치료하는’(therapeutic) 효과를 경험했다고 본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천상의 실제에 관한 환상과 전적으로 새로운 미래에 관한 환상은 계시록의 독자들의 지상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위한 보상이었다. 독자들은 천상을 환상을 통하여 기대와 사회적인 실제 사이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었다(p. 154).

계시록의 수신자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인지적인 위기’ 혹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긴장’이라는 개념이 전부일까? 혹시 지엽적이라 할지라도 로마제국과 불신 디아스포라가 가한 실제적인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7교회 안에 ‘이세벨, 니골라당, 발람’과 같은 인물들에 의한 분열과 이단적 가르침에 의한 공격도 있었다.

3. Tina Pippin¹¹⁾

2005년 논문 “여결과 음녀: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계시록”에서 피핀은 다음의 질문들을 던진다: 계시록이 성(gender)에 대해서 강조하는 패턴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문 안과 밖에서 여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의 여성의 특성은 현대 여성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의 가부장적인 본문에 저항할 길들은 무엇인가?(p. 128). 요한은 여성을 여결과 음녀로 묘사한다. 전자에는 하늘의 여왕-어머니로서 태양을 옷 입은 여인이 해당되고, 후자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지옥의 바벨론-여왕-어머니가 해당 된다(p. 129). ‘144,000명’의 해석을 위해 피핀은 아델라 야브로 콜린스의 “Women’s history and the book of Revelation”(1987 SBL Seminar paper)을 인용한다. 거기서 콜린스는 계 14장의 ‘여자와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은 144,000명’은 구약의 제의적 정결법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여성의 몸과 생리 시의 피는 남자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에, 요한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고 보았다. 콜린스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피핀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신자를 상징하는 144,000명에 여성이 신학적으로는 포함된다고 해도, 명백히 제외되는 방식으로 묘사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 세상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여성이 제외된다고 본다. 요한은 여성을 더럽히는 세력으로 보는 ‘여성혐오자’(misogynist)로 볼 수 있다(p. 130, 144).¹²⁾ 이세벨도 음행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여인이며, 자신을 욕망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인물이다. 여성은 대상이지, 자신의 삶의

11) 티나 피핀은 조지아주 Decatur시 소재 Agnes Scott College의 종교학 교수이다. 어린 시절에 보수적인 감독교회에 출석했으며, 그 후 Mars Hill College(B.A), Candler School of Theology(M.Div),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Th.M, Ph.D)에서 공부했다. 그녀의 논문은 쉬슬러 피오렌자의 영향을 받았다.

12) ‘Misogynist’라는 용어는 피오렌자에게서도 볼 수 있다. 참고. Fiorenza, 『돌이 아니라 빵을』, 124.

주체가 아니다. 여성은 욕망과 폭력의 대상일 뿐이다. 긍정적인 태양을 입은 여인도 보호 받기 위해서 광야로 ‘추방’된다고 본다(계 12:14). 그리고 긍정적인 새 예루살렘 신부도 잠시 홀로 서 있는 존재인데, 즉시 도시 이미지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은 계시록의 마지막에 모두 사라져 버린다고 본다(p. 132). 예쁘게 단장한 신부는 에로틱한 이미지인데, 새 예루살렘으로 144,000명을 유혹하여 끌어들인다. 이것도 마치 남성인 144,000명이 여성인 새 예루살렘과 성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녀 바벨론에서 나와서 신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남성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으로 본다(p. 134).

피핀이 메시아를 낳은 태양을 입은 여인이 광야로 보호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추방’으로 봄으로써 계시록의 모든 여성을 사실상 남성으로부터 억압 받는 자들로 이해한다. 그 결과 계시록의 여성 등장인물 가운데 영구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피핀에게 있어서 계시록의 긍정적인 여성상은 기껏해야 일시적이다. 그리고 피핀이 요한을 ‘여성혐오주의자’로 묘사한 것은 포스트모던의 해방신학적 이데올로기 비평가 중에서도 지나치다. 144,000명이 새 예루살렘 신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성적 이미지’로 이해한 것도 ‘eisgenesis’이다. 오히려 요한은 음녀 바벨론의 유혹과 범죄 그리고 호사스러움과 대비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긍정적으로 제시한다.

1992년 책 “죽음과 욕망: 계시록의 성 수사학”에서, 피핀은 여성은 길들여지거나 복종해야 하는 위치로 전략하여 주변화 되거나(예. 12장의 임신부와 21장의 어린양의 신부), 폭력적으로 파괴된다고 본다(예. 2장의 이세벨과 18장의 음녀 바벨론; p. 50). 계 12:1절 이하의 임신부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저항의 음성은 침묵한다고 본다(p. 77). 144,000명의 총각이 새 예루살렘 신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집단 성교’(mass intercourse)이다(p.

80). 계시록은 여성 의식의 해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계시록은 여성혐오주의자의 글이기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성은 자신의 ‘유토피아적 내러티브’를 창조해야 한다 (p. 105). 피핀은 한 사람의 유토피아(Utopia)는 다른 사람에게는 디스토피아(Dystopia, 나쁜 장소)가 되는데, 페미니즘으로 보면 계시록은 여성에게 디스토피아와 아토피아(Atopia, 장소가 없음)로 판명된다고 주장한다(p. 30, 103). 페미니즘으로 계시록을 읽는 것은 여성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미지를 드러내고, 본문 안의 여성혐오주의를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다(p. 47). 또한 과거와 현재로부터 여성혐오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도록 하여 그 음성을 듣는 것이다(p. 47, 53, 107).

피오렌자가 계시록의 비전을 현대의 언어로 바꿈으로써 유용한 미래(usable future)를 발견하기 원한다면, 피핀은 페미니스트들에게 계시록의 환상처럼 강력하고 환상적인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현재의 공포(the horrors of the present)를 드러내고 변화를 위한 일에 영감을 주도록 하라고 권한다. 이들 사이의 여러 공통점 중 하나는 계시록의 언어가 가지는 힘을 강조 한 것이다.¹³⁾ 피핀은 계시록이 말하는 바를 듣기보다는 계시록을 자기 나름대로 ‘다시 사용한 읽기’(re-using reading)라고 평가 할 수 있다.

4. Josephine Massyngberde Ford¹⁴⁾

포드는 1975년의 Anchor주석 시리즈 중 계시록 주석에서 계시록의 저자를 매우 독특하게 ‘세레 요한’이라고 본다(p. 3, 28). 포드는 요한이 ‘사단의

13) Stenström, “Feminists in Search for a Usable Future,” 254.

14) 조세핀 포드는 인디애나 주의 노틀담대학교에서 가르쳤다. 포드는 Bruce Malina와 John Pilch 등이 주축이 된 ‘Context Group’과 연관되어 사회과학적 신약 해석을 연구하기도 했다.

회'라 불린 유대인들을 기독교의 박해 세력이라고 거칠게 비판하지 않는다고 본다(p. 21-22). 포드는 '음녀'를 특별히 겔 16장에 근거하여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배교한 유대인'으로 본다. 포드는 음녀 바벨론의 파멸이 계시록에 7번 언급된다고 본다(계 14:8; 16:17-21; 17:16; 18:1-3, 4-8, 9-20, 21-24; p. 248). 하지만 포드의 이런 구절 구분은 모호하며, 더욱이 7인-7나팔-7대접의 재앙 전체가 음녀 바벨론의 파멸과 연결된다. 포드는 불신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박해를 약화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로마제국의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음녀를 이해하지만, 포드가 '음녀'를 우선적으로 배교한 유대인으로 본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Margaret Barker¹⁵⁾

바커는 2000년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바커는 큰 환난을 네로 치하에서의 박해와 행 4:5-7, 5:17-18, 9:1-20에 나타난 불신 유대인들에 의한 그리스도인 박해로 본다(p. 223). 바다짐승은 예루살렘의 악한 통치자를 가리킨다(p. 230). 바다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한 것은 AD 68년 네로의 죽음을, 바다짐승의 수 666은 네로를 가리킨다(p. 233). 포드처럼 ‘땅에 올라온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를 ‘요세푸스’로 본다. 그는 유대-로마 전쟁 중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디도 장군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p. 237-238). 쿼란 문서 등을 인용하면서 음녀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본다(p. 292).

15) 마가렛 바커는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98년에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그 학회의 학위 논문 출판을 위한 편집인으로 활동 중이며, ‘성전 신학’(temple theology)을 집중적으로 연구 중이다(참고. www.margaretbarker.com).

바커가 ‘바다짐승’을 유대의 악한 통치자로 보면서 바다짐승의 수 666을 네로로 본 것은 의아하다. 하지만 바커가 계시록을 우선적으로 구약과 유대적 배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6. Felise Tavo¹⁶⁾

타보는 2007년의 책 “여성, 어머니 그리고 신부: 계시록의 교회 개념에 대한 주석적 연구”에서 교회와 관련된 ‘7교회’, ‘성전과 두 증인’, ‘144,000명과 많은 무리’, ‘임산부’, ‘새 예루살렘 성’(계 1:4a, 5b-6, 9; 2:1-3:22; 7:1-17; 11:1-13; 12:1-18; 21:1-22:5)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론에 도달 한다(p. 346-355). 타보의 책 이름은 페미니즘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타보는 교회와 관련된 구절들 사이의 관련성을 보기 쉽게 도표로 잘 설명하고 있다(p. 357). 하지만 타보가 요한의 환상에 나타난 지리적 위치를 따라서 ‘천상 교회’와 ‘지상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환상에 천상 교회로 나타나지만 지상의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한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타보는 유월절 이미지가 새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다른 교회 이미지에 나타난다고 통찰력 있게 간파한다.

16) 펠리세 타보는 2005년에 계시록 연구로 Leuven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7. Clarice J. Martin¹⁷⁾

2005년 글 ‘깨끗한 거울을 닦기: 계 18:13의 여성적 읽기’에서 거울(mirror, looking glass)은 실제와 환영(illusion)을 반영하거나, 왜곡하거나, 재생산한다고 본다.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으로서 그녀는 계 18:11-13의 ‘중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해석한다.¹⁸⁾ 도미티안 황제의 조직적인 황제 숭배 강요가 진행된 시점에 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보는 마틴은 이 해석을 통해 1세기 사회-역사적 및 수사학적 문맥 안에서 계 18:13의 수사학적-이념적 기능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p. 90). 마틴의 해석에는 미국에서 지난 400년 동안 차별 받은 흑인 여성으로서의 한이 서려 있다. 아프리카의 노예 시장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면서 미국으로 팔려온 조상들의 역사를 반추해 본다. 마틴은 이런 여성적 읽기를 통해서 자유의 여정에서 저항, 투쟁, 그리고 해방을 획득하기를 원한다(p. 83-84).

17) 클레리스 마틴은 해밀턴 소재 Colgate대학교의 철학-종교학과 Jean Picker 교수이다. Wheaton Graduate School(M.A. 1974),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M.Div. 1981), Duke University(Ph.D. 1985)를 졸업했다. 그녀는 Society for the Study of Black Religion의 회원이다. 그녀의 글 “Womanist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In *Feminism in the Study of Religion: a Reader, Continuum*, 2001)가 흥미롭다.

18) 흑인 신학(black theology)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의 어려움을 겪은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기존의 기독교가 자신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독교를 새롭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생긴 신학이다. 흑인신학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흑인 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흑자(예. K.B. Douglas)는 하나님이 흑인 편임을 강조하려고 예수님을 흑인으로 간주한다. 혈통적으로 예수님은 셈족 즉 유색 인종이기에 미국의 경우 백인이 아니라 흑인에 해당 된다고 본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억눌린 자편에서 서서 사역하셨기에, 억눌린 흑인을 위한 메시야로 본다. 그들은 흑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흑인 신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의 희생에서 보기보다는 고통 자체에 집중하여 흑인의 고통과 동일시한다. 그리고 주종관계를 전제하고 종에게 훈계하는 본문(엡 6:5-8)은 무시 한다. 참고, 강성열, 오덕호, 정기철, 『성서해석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02-304.

그녀의 여성주의적 해석(womanist)¹⁹⁾ 해석은 3가지 전제 위에서 있다: (1) 모든 해석, 본문, 해석가는 상대적이며 부수적이다. 이념비평의 전제처럼 의미는 저자-본문-독자의 상호 작용으로 도출되지, 본문 안에 있어 캐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여성주의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문을 읽는다. 따라서 백인 중심의 전통적인 신학도 거부하지만, 남성 중심의 신학도 비평한다. 이 해석은 성, 인종, 계층적 차별을 거부한다. 좁게는 흑인 여성 넓게는 온 인류의 개인, 공동체, 교회, 사회-정치 영역에서 혁명적이며 해방적인 전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3) 마틴 자신의 여성주의 해석도 미국 안에 있는 다양한 흑인 여성들의 해석 중 하나임을 전제 한다(p. 84-86).

로마제국의 노예 제도와 미국의 그것 사이에 차이점도 있지만, 이 차이점이 유사점을 약화시켜서 안 된다. 로마제국에서 노예는 인종과 민족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자유인과 나란히 일을 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노예와 자유자에 대한 분명한 인종적 구분이 있었다. 어느 시대이건 노예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은 불명예스러웠고, 권리를 갖지 못한 죽은 인격이나 마찬가지로였으며, 주인의 지배하에 있었다. 노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도구였으며 상품이였다(p. 88).²⁰⁾ 요한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인식적 다

19) ‘Feminist’와 구별되는 이 용어는 Alice Walker의 1983년 작품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에서 사용되었다. ‘여성주의 신학’(womanist theology)은 1960-70년대 흑인신학 운동으로부터 나왔다. 흑인신학은 전통적인 신학에 유럽의 백인 중심의 성경 해석이 이념적으로 배어있음을 지적하였고, 흑인 문화의 렌즈로 성경을 보기를 원했다. 참고. C.J. Martin, “Polishing the Unclouded Mirror: a Womanist Reading of Revelation 18:13,” (In Rhoads D., ed, *From Every People and Nation: the Book of Revelation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2005, 82-109.)

20)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본성적 노예’(natural slave)와 ‘법적 노예’(legal slave)로 나누었다. 전자는 본성적으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는 열등한 인간이기에 주인에게 예속되어 노예로 사는 것이 적합한 존재이고, 후자는 다른 이유 때문에 노예로 전락한 존재로서 비평적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구분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기에, 노예 제도는 정당했다. 참고. Martin, “Polishing the

수'(cognitive majority)가 제시하는 상징 세계에 대항하는 '일탈된 공동체'(deviant community) 소속의 '인식적 소수'(cognitive minority)로서 전복적인(subversive) 수사학으로 저항 한다. 사도적-예언적 편지인 계시록은 참왕이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내용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하도록 대안적인 상징 세계를 제시 한다. 이를 위해서 Henry Louis Gates의 'The signifying monkey: a theory of African-American literature criticism'의 이론을 차용한다. 여기서 '설친하는 원숭이'(signifying monkey)는 억압 받던 흑인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주인(제국주의적 백인)의 논리나 이야기를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은유, 과장, 반복, 도치, 대유, 운율, 곡언법 등)을 동원하여 변형시킴으로써 주인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한다는 것이다(p. 91-93).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대안적 상징 세계는 독자가 거울(본문)을 닦을 때 제대로 간파할 수 있다. 그 거울은 묵시적 틀로 구조화 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으로 구성된다. 수사학의 천재인 원숭이는 자칭 '정글의 왕' 사자를 교묘하게 비꼬며 동물 세계에서 참 왕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꼬끼리를 치켜세우듯이, 요한도 자칭 세상의 통치자인 로마제국의 황제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특히 계 18장은 원고인 살육과 착취를 당한 자들이 피고인 로마제국(즉 제 2의 두로, 참고. 꺾 27)을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 18:12-13에서 노예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여 가장 천한 물품으로 전락되었다. 그 당시 노예 무역상은 로마 신전에서는 경건했지만, 무역에서는 탐욕으로 가득 찬 위선자들이었다(p. 95-99).

이상의 해석을 간단하게 평가해 보면, 마틴은 해방신학적 이념비평 위에 반(anti) 로마적 해석을 한다. 해석가는 본문 안의 억압 받는 자와 동일시해야 하며, 흑인의 역사와 전통을 동원하여 저항해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해석학적 통찰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p. 104-105). 그리고 그녀는 ‘자서전적 해석’을 흑인 여성이라는 동일한 성과 인종으로 확장하여 시도한다. 여성주의 해석에서 해석가의 경제적 지위도 중요하다.²¹⁾ 따라서 마틴의 해석은 ‘주석’이라기보다는 해방신학적 ‘적용’에 가깝다. 마틴은 흑인 여성의 해방에 필요한 혼을 제공하는 흑인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추구하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해석은 검증되지 않은 도미티안의 조직적인 황제 숭배 강요 및 일방적인 반 로마적 해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8. Barbara R. Rossing²²⁾

Rossing은 2005년의 논문 “세상의 치유를 위하여: 계시록의 생태학적 읽기”에서 현대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생태계의 파괴와 세계의 양극화 및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의라고 본다(p. 165).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정의를 연결하려고 시도한다. 계시록이 억압받는 사람들과 신음하는 지구를 다룬다고 보기 때문이다(p. 166). 목사인 그녀는 4월 22일의 ‘지구의 날’이 교회력으로 부활절과 같은 시기인데, 창조 모티브가 많은 계시록으로 설교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계시록의 ‘생태학적 읽기’(ecological reading)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

21) 참고. Loades, “Feminist Interpretation,” 82. Ann Loades는 Durham대학교 은퇴교수이다. 그녀는 여성신학과 윤리에 관심이 많았다.

22) 바바라 로싱은 Carleton College(B.A), Yale Divinity School(M.Div), Harvard Divinity School(Th.D)에서 수학했다. 1994년 이래로 시카고의 ‘Lutheran School of Theology’의 신약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로싱은 계시록 해석에서 생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기 어렵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래된 자연계의 파괴에 대한 묘사는 자연계 자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적 지시성(historical reference)을 고려한다면, 유대-로마 전쟁 중에 유대 땅과 호수와 산은 실제로 황폐화 되었다. 그러나 이 지시성과 풍부한 창조 및 출애굽 주제가 계시록의 생태학적 읽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나오면서

여성신학자라고 해서 모두 예외 없이 그리고 항상 과격한 해방신학적 페미니즘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수사학적 해석(피오렌자), 생태학적 해석(로싱), 이방 전투 신화라는 주제적인 접근(콜린스)을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티나 피핀에게서 매우 과격한 포스터모던 페미니즘을 본다. 이런 해석들은 계시록의 본문이 1차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에 균형 잡힌 계시록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 흥미로운 점은 포드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계시록의 후기 연대와 독자 중심적 해석에 기초한 반 로마제국적 해석을 했다. 이 경향은 현대 계시록 연구의 주류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페미니즘 해석은 계시록이 언약의 저주를 시행하기 위해서 속히 오실 승귀 하신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과 그 결과 소아시아 7교회가 받을 위로를 중심 내용으로 함을 간과한다.

여기서 성경해석의 요소와 원칙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성경 해석 경향에서 바람직한 변화는 본문 안에 의미를 의도한 ‘저자’의 중요성을 다시 인정하는 흐름이다(예. A. Thiselton, K. Vanhoozer).²³⁾ 저자의 중요성을

23) 참고. J.K. Brown, *Scripture as Communication: Introducing Biblical Hermeneutics*, Grand Rapids: Baker, 2007, 69, 80. Jeannine K. Brown은 Luther Seminary(Ph.D.)에서 학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의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로서의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의 과정에서 독자의 참여를 무시하지 않는다(Meaning is author derived but textually communicated).²⁴⁾

포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계시록 해석에서 구약 간본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²⁵⁾ 계시록 연구에서 상황화(contextualization)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구약 간본문 연구이다. 본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 사이에 상호작용이 불가피하기에 상황화를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된 능력의 말씀이므로 독자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독자가 저자의 스타일, 배경, 의도, 성경 전체에서의 정경적 위치를 불완전하게 파악한다면 문제의 여지가 크다.²⁶⁾

이 글이 가부장적 입장에서 여성을 또 다시 억압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란다.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성경 위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를 검토하고, ‘의심의 해석’을 내세우기 전에, 순종의 자세로 본문을 경청하려는 ‘해석의 겸손’이 필요하다. ‘창조력’과 ‘상상력’은 성경 해석과 상황화에서 태생적으로 부정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제쳐둔 채 본문의 의미를 나름대로 창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원

받고, 현재 St. Paul 소재 Bethel Seminary 교수로 있다. 그녀는 마태복음의 제자도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

24) Brown, *Scripture as Communication*, 97.

25) Brown은 구약이 신약 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한다: 신약 저자의 논의의 한 부분으로 기능함으로써(시 34:12-16; 벨전 3:8-12), 구약의 성취를 보여줌으로써(사 40:3; 막 1:2-3),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 부분을 상기시킴으로써(마 1:2-17), 구약과 신약의 유비를 제공함으로써(출 32:6; 고전 10:1-11), 예증의 기능으로써(사 29:13; 마 15:3-9), 새 언약과 구약 사이의 연속성에 관해 몇 가지 측면을 강조함으로써(창 15:6; 시 32:1-2; 롬 4). 참고. Brown, *Scripture as Communication*, 227-228.

26) Brown, *Scripture as Communication*, 250.

저자이신 성령님과 사람 저자의 의도와 목적의 인도를 받는 상황화와 적용이 바람직하다.²⁷⁾ 여성의 섬세함과 통찰력이 계시록의 해석에 건설적인 도움을 주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²⁸⁾

27) Brown, *Scripture as Communication*, 260.

28) Adams (2009:108)는 페미니즘 성경 해석의 두 가지 기여를 언급 한다: (1) 성경 번역에서 ‘성 포괄적’(gender inclusive) 표현의 추가로 본다. 하지만 성령께서 남성적 표현으로 기록하도록 의도한 것을 성 포괄적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저자에 충실한 번역’인지 의문이다. (2) 여성이 기독교 신앙과 신념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존재임을 부각시킨 것. Loades (1999:92)는 페미니즘이 성경 해석에 자극을 주며, 우리의 관계성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재 상징화(re-symbolize) 하도록 설득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을 재 상징화 하는 것은 기존의 신관이 잘못되고 부족했기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변하는 것으로 들린다.

참고문헌

- Adams, S. Feminist Interpretation. (In Porter, S.E., ed. *Dictionary of Biblical Criticism and Interpret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107-108.)
- Barker, M. 2000.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Edinburgh: T&T Clark.
- Brown, J.K. 2007. *Scripture as Communication: Introducing Biblical Hermeneutics*. Grand Rapids: Baker.
- Collins, A.Y. 1984. *Crisis and Catharsis: the Power of the Apocalyps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Collins, A.Y. 1976. *Combat Myth in the Book of Revelation*. Missoula: Scholars Press.
- Fiorenza, E.S. 1994. 『돌이 아니라 빵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Fiorenza, E.S. 1991. *Revelation: Vision of a Just World. Proclaiming Commentar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 Fiorenza, E.S. 1985. *The Book of Revelation: Justice and Judg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Ford, J.M. 1975. *Revelation.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 Loades, A. 1999. Feminist Interpretation. (In Barton, J.,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1-94.)
- Marshall, J.W. 2009. Gender and Empire: Sexualized Violence in John's Anti-Imperial Apocalypse. (In Levine, A.J., ed. *A Feminist Companion to the Apocalypse of John*. Edinburgh: T&T Clark. p. 17-32.)
- Martin, C.J. 2005. Polishing the Unclouded Mirror: a Womanist Reading of Revelation 18:13. (In Rhoads D., ed. *From Every People and Nation: the Book of Revelation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 82-109.)
- Pippin, T. 2005. The Heroine and the Whore: the Apocalypse of John in Feminist

- Perspective. (In Rhoads, D., ed. *From Every People and Nation: the Book of Revelation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p. 127-145.)
- Pippin, T. 1992. *Death and Desire: the Rhetoric of Gender in the Apocalypse of Joh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Rossing, B.R. 2005. For the Healing of the World: Reading Revelation Ecologically. (In Rhoads, D., ed. *From Every People and Nation: the Book of Revelation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p. 165-182.)
- Stenström, H. 2009. Feminists in Search for a Usable Future: Feminist Recep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In Lyons, W.J. & Økland, J., eds. *The Way the World Ends: the Apocalypse of John in Culture and Ideology*.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p. 240-266.)
- Tavo, F. 2007. *Woman, Mother and Bride: an Exegetical Investigation into the "Ecclesial" Notions of the Apocalypse*. Leuven: Peeters.
- 강성열, 오덕호, 정기철. 2002. 『성서해석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관익. 2009. 예수의 성서 해석: 여성주의 성서해석방법론을 위한 제안. *신약논단*, 16(4):1121-1145.
- 일레인 쇼월트. 2004.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 문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한미라. 2002. 『여자가 성서를 읽을 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